

보 도 해 명 자 료 (‘13. 4. 23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주먹구구 가스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”(서울신문, ‘13.4.23)

1. 기사내용

- 업체는 가스공사가 ‘10.12~’12.2월간 천연가스 장기도입계약 7건(연 1,734만톤)을 한꺼번에 맺는 바람에 20조원 이상의 국부를 낭비했다고 비판
 - ‘93~’07년까지 매년 1건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임
- 여기에 ‘17년부터 러 PNG(연 750만톤), 모잠비크산(연 420만톤), 파푸아뉴기니산(연 800만톤), 직수입 등을 합치면 가스 수입량은 국내 소비량을 뛰어넘어 1,000만톤 이상이 남게 됨
- 향후 1~2년 안에 셰일가스의 소비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LNG 가격이 최소 10% 이상 낮아질 전망이나, 우리나라는 엉뚱한 장기도입계약으로 그 효과를 반영할 수 없다고 전문가는 지적
- 가스공사 총수입량 중 중장기계약 물량이 ‘10~’12년간 70%대를 유지하고 있었던 바, 중장기 계약 물량이 과다하다고 지적
- 업체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가격과 수요 전망도 없이 최소 ‘20년까지 장기도입계약을 맺으면서 20~25조원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◇ 「‘10.12~’12.2월간 천연가스 장기도입계약 7건(연 1,734만톤)을 체결하였는데, 이는 그간 매년 1건 이상의 장기도입계약 체결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시 매우 이례적」이라는 내용에 대하여

- ‘10.12~’12.2월간 체결한 장기계약은 6건으로 연간 약 1,500만톤 규모(‘20년 기준)임
- 천연가스 도입계약은 국내 수급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지며, 이에 따라 ‘95년에 2건, ‘05년에 3건의 장기도입계약이 체결되었는 바, 매년 1건 이상의 장기도입계약 체결이 없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
- 보도에서 언급된 ‘10~’12년 장기도입계약의 경우도, 계약 체결 당시 일본 원전사태 등으로 국제 LNG 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,
 - ‘10년 이후 급증하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 여건과 ‘15년 전후로 종료되는 다수의 중장기도입계약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중장기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을 위해 도입계약을 체결한 것임

◇ 「‘10.12~’12.2월간 체결한 장기도입계약 7건에 러 PNG·모잠비크·파푸아, 프리포트·커버 포인트, 직수입 등을 감안시 가스 수입량은 1,000만톤 이상이 남게 된다」는 보도에 대하여

- 보도에서 언급된 모잠비크는 아직 탐사단계로 국내 도입물량과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으며
 - 파푸아뉴기니, 프리포트·커버 포인트 등은 도입계약이 체결된 바 없는 바, 국내 가스 수입량 중 1,000만톤 이상이 남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

◇ 「셰일가스로 인해 향후 1~2년 안에 LNG 가격이 최소 10% 이상 낮아질 전망이나, 엉뚱한 장기도입 계약으로 그 효과를 반영할 수 없다(전문가 지적)」 는 보도에 대하여

- 북미 셰일가스가 LNG로 생산되어 수출되는 시기는 미국 첫 번째 LNG 수출 프로젝트인 Sabine Pass의 경우 '17년부터 도입이 가능하며
- 여타 셰일가스 수출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미 정부(에너지부, 연방규제위원회) 승인 절차, LNG 수출터미널 건설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'20년 전후에 수출이 가능할 전망
- 따라서 셰일가스 효과가 향후 1~2년내에 동북아시아 시장의 LNG 가격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

◇ 「가스공사 도입물량 중 중장기계약 물량 비중이 '10~'12년간 70%대를 유지하고 있는 바, 중장기계약이 과다하게 체결되었다」 는 보도에 대하여

- '10년 가스공사 도입물량 중 중장기계약 물량 비중은 약 85%이며, 지난 10여년간 중장기계약 물량 비중은 72~93% 수준임
- 국내 천연가스 수요 변동성으로 인해 매년 고가의 스팟을 대량 조달하는 위험성을 낮추고 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도입계약 비중을 수요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

*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도 “천연가스 도입계약 평가에 대한 연구”(‘12.3월)에서 국내 수요 변동성을 고려시 바람직한 중장기계약 비중을 90% 이상으로 제시

◇ 「가스공사가 가격과 수요 전망도 없이 최소 '20년까지 장기도입 계약을 맺으면서 20~25조원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(업계 관계자 지적)」 는 보도에 대하여

- 천연가스 장기도입계약은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상의 수요전망, 세계 LNG 시장 전망 등을 바탕으로
 - 장기도입계약의 필요성 및 가격 수준에 대해 외부전문가들의 자문과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확정됨
- 보도에서 언급된 '10~'12년 장기도입계약의 경우도, 당시 국내외 수급 여건상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
 - 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세계 LNG 시황 등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계약이 체결되었음

※ 자료문의 : 가스산업과 이용환 과장, 윤제민 사무관(02-2110-5469)